

F1(FTA No.1) 그랑프리, 거침없는 무한질주!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N사는 끊임없는 자동차엔진 R&D투자로 시동모터와 발전기 분야인 Starter와 Alternator의 No.1 Maker로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
 - 주요수출국은 멕시코(65%) ▶ USA(12%) ▶ EU(8%) ▶ 중국(8%)
▶ 브라질(5%) 順
- 제품소개

품목	세계시장 점유율
고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(Heavy duty Starter & alternator)	20%
저출력 시동모터 및 발전기(Light duty Starter & alternator)	13%

2. FTA 활용전 상황

-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은 글로벌 경제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는 현실에 직면

1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경쟁구도 심화 ▶ '09년 대비 업체수 2.4% 증가	2 국내외 경기침체로 매출액 감소 ▶ '09년 대비 매출액 10.2%감소
3 국제유가·원자재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 ▶ 최근 20년간 유가·원자재 400%, 300%이상 증가	4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경쟁 심화 ▶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 목적 비관세장벽강화

3. 장애 요소

무역부 김과장 설명회란 설명회는 모조리 다녀 이제 FTA에 대하여 조금은 안다고 생각이 들지만, 인증수출자를 받기 위해 당장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.

- ① FTA이해부족 : 각 기관의 설명회 및 교육내용은 포괄적이고 추상적
- ② 직원들의 무관심 : "FTA는 무역팀 담당자만의 업무"라는 인식 팽배
- ③ 협력업체 무관심 :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, 정보부족 등 이유로 FTA활용포기
- ④ 협정위반의 강도 높은 제재와 업무과부하에 대한 두려움

4. 극복 방법

- **(1차 진단)** 세관 FTA집행센터 컨설팅을 통한 회사 진단/처방 파악

진단결과 문제점	Solution제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TA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 부족 • 고객사 주관의 주입식 원산지 확인서 관련 교육의 한계 ▶ 협력 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어려움 • 발급된 확인서의 신뢰성 문제 및 사후검증에 대한 불안감 팽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진과의 미팅에서 FTA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인식의 전환 유도 • 완성품 제조·공급기업 및 협력업체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유도 ▶ 신뢰성 있는 FTA관련 서류 발급 및 원산지 검증에 대한 사전대비 • 한-EU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공급방안 강구(역내산 누적이준 활용)

- **(2차 실천계획)** FTA활용을 위한 로드맵 수립

중점 추진 활동	세부 실행 계획
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/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규 인원 총원(전담자 1명+담당자 1명) •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(전담자)
전사적 원산지관리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FTA추진 TFT 구성확대 • 원산지관리 사내 경영규정 제정
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내 ERP SYSTEM 개선 • 협력사관리시스템 개발추진(Partner System개발)
협력사 관리 방안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협력사 교육/검증 계획 수립(Top&Down 맞춤형) • 인증수출자 취득컨설팅 진행
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요 품목 5개 선정 • 협정별 원산지소명서 작성

- (3차 검증대비)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role model 수립

- (모니터링 결과) 협력사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낮음

* 본부세관 사전검증('11.8월), 고객사(현대차, 모비스) 검증('11.9월, 11월)

- ▶ FTA상대국의 고객사 대상 원산지검증시 “1차 협력업체 자격”으로, “당사에 대한 원산지검증”, “하위 협력사로부터 수취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검증” 필요

역할 1	국내거래에 대한 고객사에게 “원산지확인서” 교부
역할 2	직접 수출물품에 대한 “원산지증명서” 발급
역할 3	국산원재료에 대해 협력사들로부터 “원산지확인서” 수취

- 협력사와 상생적·유기적 관리체계 구축

- 협력사에게 원산지검증,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지원 등 총체적 지원을 하고 원산지검증을 자체 실시*한 결과, 아래와 같이 성과 거양

* 검증방법 : 자율사전+세관합동 현장검증 (68개 업체)

구분	결과 및 시사점
자율사전검증 ('12년 3월)	S등급 3개, A등급 3개, B등급 5개업체 (원산지관리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나 협력사의 인식변화가 큰 성과)
현장검증(6월)	B등급 이상 11개에서 30개로 비약적 향상

- 협력업체들도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

5. 활용 효과

- 수출경쟁력 확보 및 협력사로의 FTA성과 향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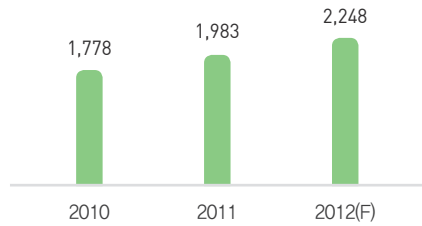
- 한-EU 및 한-미 FTA 협정에 따른 해외바이어 관세절감 : 338,539불

- 협력사 매출액 30% 향상 등 협력사로의 FTA 성과 확산

- 국내산업 활성화

- (일자리 창출) 협력사 상위 12개 업체 평균 13%의 고용창출

주요 협력사 최근 3년간 고용실적



구분	2010	2011	2012
인원	1,778	1,983	2,248
증가	-	205	265
비율	-	11.53%	13.36%

* 상위 12개사 합산

약 13%의 신규고용창출 향상!

- (新성장동력 확보) 신규사업분야(Alternator) 확장, 제조라인 증설

6. 시사점

- 원청기업과 협력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공동노력은 수출량 증대로 이어져 발주량 증가 등 협력관계의 공고화는 물론 신규 고용창출 등 기업규모 확장까지 견인할 수 있어 Win-Win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구조라는 인식 필요